

최초 너그네

CCC 오진탁 목사 기도편지
2024-2(20240228)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말(春來不似春)이 요즘 날씨에 딱 맞는 말입니다.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춥다가 반짝 날씨가 풀리나 십다가도 금방 또 추워지니 도무지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역자님은 이런 불순한 일기(日氣) 가운데서도 건강 잘 유지하시고 하시는 일에 열매가 있고,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동역자님도 사도 요한이 한 기도처럼 영혼이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역자님의 기도와 사랑 땀과 피가 뻔 헌금으로 CCC 안에서 지난 한 달 건강하게 감사하며 살아왔고 사역했기에 감사를 담아 소식 올려드립니다.



2월 한 달 이렇게 살았습니다.

1 토	박사 논문 최종본 지도교수님께 제출	<p>He picked up his Bible. "Now, near seventy, I face another transition, but it feels different." His voice wavered. "I have lived modestly, saved what I could. The pension and a small fund provide something, but medical costs are rising. My wife and I have learned to live, but I wonder: Will it be enough? What if one of us gets seriously ill?"</p> <p>He leaned forward. "But you know what keeps me awake? It is not the money. It is purpose. Ministry is not a job you retire from - It is a calling. After decades of pouring my life into others, how do you stop? I do not want to exist in retirement. I want to keep serving, but how? What does that look like when you are no longer 'on staff'?"</p> <p>Pastor Lee shifted in his chair and pulled out an envelope with a picture of him and his wife at a retreat. "My wife and I have been ministry partners for decades. She managed our home, raised our children, and supported me while I traveled. Now, retirement will bring us together in new ways. We need to rediscover each other - not just as partners, but as husband and wife spending full days together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p> <p>His gaze returned to the wall of photographs. "KCCC has always been about equipping others - students, communities, churches. However, as senior staff approach retirement, we need resources, too. Not just financial planning but guidance for this spiritual and emotional transition. We have so much experience to offer, but we need a framework to channel our calling into this new season."</p>	그동안 모든 능력과 힘을 쏟아부어 완성한 논문을 싱가포르에 계신 지도교수님께 제출했습니다. 흔히 논문 한 편 쓰려면 영혼을 갈아넣는다고 하는데, 그 느낌을 실감했습니다. 한글 논문도 쉽지 않은데, 영어 논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두 달 동안 새벽 2~3시에 잠자리에 들며 온 힘을 다해 마쳤습니다. 이제 지도교수님의 수정 지시를 받아 보완하고 제출 승인이 나와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논문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4-7 화-금	논문 수정. 목차 정리	<p style="text-align: right;">vi</p> <p style="text-align: center;">TABLE OF CONTENTS</p> <p>DECLARATION OF ORIGINALITYi</p> <p>ABSTRACTii</p> <p>ACKNOWLEDGEMENTS iii</p> <p>TABLE OF CONTENTSvi</p> <p>CHAPTER 1: INTRODUCTION 1</p> <p> Introduction.....1</p> <p> A Story of a Senior Full-time Staff of KCCC.....1</p> <p> Autobiographical Statement.....4</p> <p> Description of Ministry Context5</p>	제가 제출한 논문을 지도 교수님께서 1차로 수정할 내용을 보내주셔서 수정했습니다. 특히 MS Word에서 자동 목차 만드는 법을 몰라 수작업으로 했으나, 자동으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 방법을 배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학위 논문은 창의적 내용뿐 아니라 인용 방식, 페이지 정렬, 각 장별 단어 수, 부록 수록 등 형식도 정확해야 통과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학문적 질을 유지하는 데 형식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5 수	<p>한국 직장 선교 연합회 회장과 교육 부장님. 이정수 간사님 만남</p>		<p>청년 직장인 사역 강화를 위해 부서를 이동한 이정수 간사님의 요청에 따라, 한직선 회장 이훈 장로님, 김은정 선교사님과 함께 CCC본부 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 직장 선교 연합회에서는 청년 세대 선교 전략이 미비한 상황에서 MZ세대 전도를 논의하며, 이정수 간사를 한직선 차세대 전도 팀장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훈 회장님의 수락으로 이정수 간사가 CCC 및 한직선 내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유능한 후배 간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자로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p>
6 목	<p>카이캉 실사 영등포, 동작구</p>		<p>이날 오전에는 동작구에 있는 거룩한 방파제 선교회 (대표 이용희 목사/교수)를 오후에는 영등포 노량진 수산시장 옆에 있는 Practical Leadership Church (PLC 교회 대표 이정훈 목사)님을 찾아가 실사를 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선교회는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를 막아내기 위한 기도 중심 선교회로 대표인 이용희 교수님은 전국 에스더 기도운동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전국 불교회 회장을 하다 하나님을 만나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목회를 하고 있는 Practical Leadership Church 이정훈 목사를 실사했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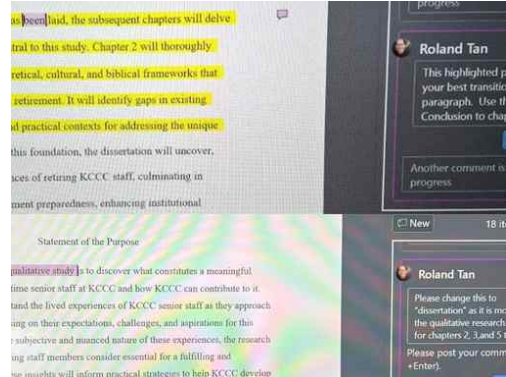
<p>10 월</p>	<p>카이캄 제 51회 목사 고시 감독</p>		<p>서울 양재동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카이캄 제 51회 목사고시가 시행되었으며, 저는 302호 강의실에서 시험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 및 해외 신학교 출신 전도사 165명이 응시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조직신학, 교회사, 신구약 성경 시험이 진행되었고, 점심 후 심층 인성 검사를 치렀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3월 중 개별 면접을 거쳐 4월 28일 목사 안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관 목회, 해외 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할 것입니다.</p>
<p>11-12 화-수</p>	<p>김준곤 목사님 사모님 소천 장례</p>		<p>한국 CCC 창립자 고 김준곤 목사님의 아내 전효심 사모님께서 89세를 일기로 소천하셔서,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아내와 CCC 출신인 아내의 제자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첫날 조문 후, 아내는 40여 년 전 CCC에서 청춘을 바쳐 캠퍼스를 누비며 전도와 제자화에 헌신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목사님 뒤에서 빛도 없이 섬기신 사모님의 귀한 삶 덕분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며, 마지막을 꼭 배웅하고 싶다고 하여 다음 날 아침 일찍 발인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분의 삶과 헌신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p>

12 수	직선대 팀과 순출판사 팀장 만남		<p>한국 직장 선교대학 이재웅 목사님, 이상인 사무국장님, 김 선교사님과 CCC 순출판사 박성운 실장님이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직선대 훈련원에서 16쪽짜리 기존 사영리 대신 CCC와 한국 직장 선교 연합회 로고를 넣은 12쪽 새 사영리를 제작하였고, 이에 감사하여 박실장님께 밥을 사주신 것입니다. 이번 1만부 인쇄분은 전국 직선대 전도 훈련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선교단체 CCC와 직장 선교기관 직선대의 협력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에 전도자가 세워지고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p>
13 목	카이캉 살사 세종자치 특별시		<p>KTX를 타고 천안아산역에 도착한 후 택시로 세종시로 이동하여, 교회 청년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창조교회(대표 이후성 목사)를 실사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남양주에서 개척되었으나, 교회 건물 매각 후 세종시로 이전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남양주 성도들과 지역에서 전도된 성도들까지 약 15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부름받은 종들을 통해 크기에 상관없이 교회를 세워가시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p>

<p>14, 28 금</p>	<p>부서 기도회, 회의 및 운동</p>		<p>새해 들어 부서 운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주는 전체 기도회와 회의, 한 주는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조정하여, 전체 모임 후 기도회와 회의를 마친 뒤 함께 점심을 먹고 건강 관리를 위한 스포츠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2시간은 기도회, 회의, 점심 식사로, 2~3시간은 스포츠 활동으로 활용합니다. 요즘은 서울 서초동 풍성한 교회(저희 부서 간사 장원기 목사님 담임)를 사무실처럼 사용하고 있어, 근처 반포 종합 운동장을 이용하기도 편리하여 좋습니다. 함께 운동하며 팀 의식이 커지고, 부서원들의 유대감도 더 깊어갑니다.</p>
<p>17 월</p>	<p>케이캄 실사 서울 용산 관악</p>		<p>제주도 외국인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회를 하다가, 점차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평지 선교회'(한미숙 대표, 동역 이석재 목사)를 세워 케이캄에 가입하여 실사를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관악구 리토드 처치(유덕경 목사)를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유목사는 모친이 세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목사에게 교회를 맡기고, 다시 개척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워 케이캄에 가입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p>

<p>18 화</p>	<p>정성혜 정도사 김지훈 목사 만남</p> <p>한홍섭 목사님 만남</p>		<p>CCC 간사를 하다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으로 부산에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된 정성혜 전도사와 김지훈 목사가 서울에 와서 찾아와 만났습니다. 작년 여름 저를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불러 성경강해를 부탁했던 두 사역자가 교회 청년 심방을 위해 6시간 7시간씩 운전하며 찾아가는 그들의 마음에 존경심이 우러납니다.</p> <p>한홍섭 목사님은 코로나 이전에 나눔교회에 함께 계시다 새로운 교회로 가셨는데 어느날 저와 나눔 대화에 도전을 받으셔서 박사과정을 공부하셨고 그래서 제게 논문을 전해주러 찾아오셨습니다. 논문 Acknowledgement에 제 이름을 적어서 아예 밝혀 놓으셨으니 제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겠지요. 주님께서 더욱 놀랍게 한 목사님을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p>
	<p>김종호 목사 사모 소천 위로 예배</p>	 <p>故 김경아 성도 유족 위로예배</p> <p>일시 2025년 2월 18일 오후 3:00</p> <p>장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p> <p>집례 조영민 목사</p>	<p>나눔교회 협동목사로 함께 섬기는 김종호 목사님의 아내 김경아 사모님께서 오랜 병마 끝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시신을 기증하셔서 입관과 발인예배 없이 위로예배만 드렸습니다. 저는 담임목사님의 부탁으로 예배 시작 기도를 드렸습니다. 김 사모님은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고 입양운동에 헌신하며,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해 많은 이들이 조문하셨습니다. 김 목사님과 가족들이 사별의 아픔을 주님의 위로로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p>

<p>22토</p>	<p>직장선교대학 수료식 축도</p>		<p>코로나 이후 전국 직장에서 훈련을 받고, 직선대 훈련과정 3단계를 마친 분들이 서울 방배동 동명교회에서 수료식을 가진 후 직장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1부 특강, 2부 수료예배, 3부 임명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헌금 기도와 축도를 맡아 섬겼습니다. 직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대전시청 직선대 훈련생 한 분의 간증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 남편 전도를 위해 김제까지 가 농장일을 도우며 복음을 전했고, 결국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직선대 훈련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새롭게 하고 저도 동역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p>
<p>25-26 화 수</p>	<p>Man of Impact 세미나 수강</p>		<p>국제 CCC 리더십 팀에서 남성들이 인생의 사명, 목적, 의미를 찾아 살도록 돕기 위해 개발한 교재를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며, CCC 강사들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수강생으로 참여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교재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된 삶을 살도록 돕는데 유익할 것입니다. 특히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저도 주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p>

<p>통장 잔고 0원</p>		<p>평생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내야 할 여러 가지 청구금들을 내지 못했고 이곳저곳에서 미납됐다는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모로 걱정되었으나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때 역대하 14:11절에서 아사 왕이 구스 사람 세라의 대군을 맞아 싸우려 할 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한 게 생각나 저도 저의 필요와 통장 0원 사이에 하나님 밖에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믿음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절감하며 오늘도 필요는 채우시겠다는 하나님 믿으며 살아갑니다.</p>
<p>논문! 논문! 논문!</p>		<p>논문 작업으로 2월 한 달 내내 거의 밤샘하며 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 수정사항을 보내셔서 앞으로도 계속 고쳐야 하며, 다음 심사 교수님들 요청 시 추가 수정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쯤 모든 과정이 끝나 두 다리 쪽 뻗고 편히 잘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제 부족한 능력으로는 오직 하늘의 은혜와 지혜에 의존할 뿐입니다. 동역자님의 기도로 감당해 내게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p>

서울대 병원 신우회



매주 목요일 저녁, 서울대 병원 선생님들과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쁜 근무 중에도 꾸준히 참석해 서로 신앙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이 모임은 큰 축복입니다. 현재는 출애굽기 28장을 공주하고 있는데, 앞 20-24장까지 모세 율법을, 25-27장까지 성막 건축을 공부했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시는 장소임을 공부했습니다. 28장부터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과 그들의 복장이 갖는 의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PCS 관계 전도 훈련 안내



우리 부서에서는 4월 1일부터 기도(Prayer), 돌봄(Care), 전도(Share), 관계전도 훈련을 실시합니다. 총 9주 과정으로,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과 '왜 PCS인가' 강의, 마지막 주는 수료식으로 진행됩니다. 주간반은 오전 10시~12시, 저녁반은 오후 8시~10시에 운영되며, 온라인 참여가 가능해 집, 사무실 또는 조용한 곳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 있거나 훈련이 필요한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상의 후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서는 새 여정을 시작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 제목

1. 요즘 논문에 너무 집중하느라 말씀과 기도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의 목적도 삶과 신앙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저부터 흔들리는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살길 소원합니다. 영혼과 몸, 정신의 균형을 잃지 않는 삶을 계속 훈련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소서.
2. 모든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남은 논문 과정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3. 아내가 제자 양육과 성경공부,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태권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가르침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4. 건강을 위하여 3월부터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1주일에 3번 30분씩(3/30 운동) 하려고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잘 실천하도록 그래서 향후 4/40 5/50 하는 식으로 늘려 갈 수 있게 하소서.
5. 치매로 인한 망상으로 밤마다 잠 못 주무시며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 평안한 날로 살게 하소서.
6. 동생들 오시탁(제수씨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쌍둥이 자녀), 오남탁(제수씨, 아들과 딸), 막내 오성탁(제수씨 두 딸)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7.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후원이 많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으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월 특별한 까마귀를 보내셔서 필요가 채워지고 믿음이 더 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2025년 2월 28일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참여하고 있는 사역 동역자 오진탁 김은경 목사 올림